

폭풍위의 위기

행 28:1-15

찰스 브레슬린 플로드가 쓴 책 <우리 지난 날들의 추억>에서 주인공 로버트 리는 남북전쟁 후 켄터키 주에 있는 어느 여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인은 그를 안마당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북군의 폭격에 의해 꺾인 큰 고목나무를 보여줍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끼던 나무가 폭격을 맞아 이렇게 되었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여인은 로버트 리가 이야기를 듣고 북군을 욕하면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로버트 리는 한참 침묵한 후 말합니다. “부인, 나무가 저러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흉합니다. 차라리 잘라 버립시다. 다시는 저 나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 때와 슬픔 때가 있습니다. 루벤 알부진은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미래의 선율을 듣고 아름다운 그 선율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품는다는 것은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구원

희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절망의 순간에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달려오는 진퇴양난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모세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버려진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희망을 가진 자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만약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희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275명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광풍이 이는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희망은 곧 구원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무서운 광풍과 생사를 걸고 싸운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 배고픔, 헐벗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고통을 느끼는 몸뚱이뿐입니다. 그들은 첩첩산중으로 또 다른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그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출 16:3)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특별한 방법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뇌물이나 탈세가 없는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돈키호테 식 경영 방법이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사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구두 분야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상품권 사용을 금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할부 전표라

는 이름을 붙여 편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랜드는 편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고집했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따르면, 기업이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은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박 회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망할 각오를 하고 열심히 뛰었더니, 어느 새 자신이 일등을 하고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데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흘린 땀의 몇 배를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광야에는 감춰진 축복이

이제 바다에서 기사 회생한 275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예언하고,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살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리더의 고독함이 있습니다. 리더는 한번 길을 안내하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275명은 양식과 의복과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것도 줄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에 사는 토인들이 그들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토인들이 그들을 영접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미신 때문입니다. 바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섬 사람들은 광풍을 동반한 폭풍우 속에서 275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선원들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구해 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토인들의 신앙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감추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에는 감춰진 축복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며 반석의 샘물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큰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 수고, 고통, 절망, 기쁨, 슬픔 등 모든 것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협력’과 ‘선’입니다. ‘협력’은 헬라어로 ‘스메르게오’입니다. 여기에서 ‘시너지즘’이란 말이 파생했습니다. ‘시너지즘’은 두개 또는 그 이상이 결합해 각각 하나로 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적의 방해 세력까지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고통, 황폐, 절망, 광야 등을 합한 값이 ‘선’입니다. 이 진리는 절망에 부딪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각을 뜨고 남김없이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히 11:17)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얻은 셈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신앙은 초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삭이 믿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으므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만큼 커졌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물로 드려져도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축복은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죽음에 던져진 그들이 바울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면 따라 하고, 바울이 믿으면 따라 믿습니다.

선한 열매를 이루게 하심

살다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고 말씀하며 아담부터 시작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고통, 환란, 유혹 등을 헤치고 승리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생일 때 방학을 이용해 같은 학생들과 함께 태백 장성 지방의 시골 교회를 도우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장성 지방의 교회들이 연합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집회 참가를 신청한 학생들의 수만 해도 2천명이 넘었습니다. 집회를 준비한 분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회의장에 모여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사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결론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각자 맡고 있는 인원을 합하면 2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2천을 35로 나누면 70이 채 안됩니다. 1대 2천은 불가능하지만, 1대 70은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 날 회의는 기도로 끝났습니다.

3일간은 장성 지방에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집회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준비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멜리데 섬 토인들의 신앙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도 함께 사용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배에서 있었던 공로를 따지자면 바울은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인들이나 하는 나뭇가지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곧 화를 불러오고 맙니다.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에 물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토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토인들은 바울이 죄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가 고통을 당하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드러난 죄가 없다면 감춰진 죄라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속으로 업신여깁니다.

사람이 뱀에 물렸으면 즉시 뱀을 떼어내고 독을 빨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앞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며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여기서 의인과 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뱀에 물리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에게 전혀 상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바울을 신으로 치켜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치료합니다. 이 치료가 바울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만듭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에는 일행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험클어진 매듭을 푸는 해결점이요, 승리의 예고편입니다.

연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대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누가는 특별히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재현했다고 묘사하며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후로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을 떠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당한 바울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을 보고 법을 어겨가며 친절하게 대해 줍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나와 마중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바울을 수행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충만한 마음에 담대 해졌습니다. 로마행을 선택하고 죽음을 넘나드는 여행길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가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275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압비오 저자 거리와 마을 광장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용사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감격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교회와 로마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좋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율법을 고수하는 기득권층들이 이방 선교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써 로마 교회는 정통성을 인정받고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명이 로마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많은 역경을 헤치고 로마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들은 초대 교회를 세우고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 사도 행전의 역사가 계속 기록돼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사도행전은 29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섰습니다.

우리 손 안에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한 글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